

호모포비아 나라 엘리스, 레드카드를 들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목차

기획의도

호모포비아어록

1. 혐오, 역겨움
2. 정신병, 연민
3. 종교
4. 자연, 사회 질서에 역행
5. 연애와 섹스에 목매다는!
6. 원인설
7. 성병, 에이즈
8. 레스보포비아
9. 동성애는 한 때
10. 동성애자 당사자의 혐오 내면화
11. 외모
12. 이성애 중심주의
13. 레즈비언=페미니스트
14. 기타

레즈비언이 말하는 호모포비아

- 내 안의 호모포비아 댓글 정리
- 내게 호모포비아를 내비췄던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더 가까운 이야기 - 경험

- 이 호모포비아 어록을 읽어야 할 친구에게
- 신의 이름을 빌린 ‘차별’

인권정책팀을 소개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기획의도

호모포비아 어록을 발간하며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거나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렴 남 속이 제 맘이야 같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기 위해선 천 마디보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니, 나 몰라라 하는 편이 편하게 사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차이를 인정하기만 하면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큰 상관없을 성도 싶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의 성의와 노력도 사람들에게는 귀찮은 것일까요? 사실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 말은 쉽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타인의 욕구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기도 해야 하니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쉬운 것 없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것은 모두 없애 버리거나 맘 놓고 미워하

는 편이 간편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질 만한데도 가끔 사람들의 적개심 앞에서 어리둥절해 집니다. 한 예로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동성 결혼’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왜냐고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애쓰는지 말입니다. 동성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죄라고 단언하는지, 따져보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너무 커서 말 붙이기도 싫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온 몸에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분명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잘못이라 하니 어찌면 잘못일지도 모른다고 불안해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며 툭 던진 말이, 조소와 물이해와 악의적인 욕설들이 너무 많아 하룻밤 자고나도 마음에서 씻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고 속 시원하게 대꾸 할 수만 있어도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수월할 텐데 목까지 찬 말들을 뱉을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뭐라고 쏘아주어야 할지 생각이 안나 슬퍼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 속병이 되기 전에 우리를 화나고 무기력하고 슬프게 만드는 말들을 좀 타작해야겠다 싶어 호모포비아 어록을 내놓습니다. 동성애나 동성애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모아 그동안 하고 싶던 말들을 속 시원히 해보았습니다. 못한 말들을 모아놓으니 그 자체로도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 보이지만 거기에다가 반박하는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혐오의 말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레즈비언들과 함께 분노와 고소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록이 별 생각 없이 호모포비아적인 말을 하곤 했던 사람들에게도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용기 불끈, 전투력 만땅 하길 빌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호모포비아어록

1. 혐오/역겨움

“여자들끼리 뭐하는 거니? 더러워.”

우리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동성애자는 뭔가 특이해야 할 판이군요.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사회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도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서 버젓이 동성애자에 대한 욕과 비하를 일삼을 때는, 확(!) 말해버리고 싶죠. "내가 바로 그 동성애자거등?!"

그런데 동성애자임이 드러났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요. 일부러 상처받으라는 듯 무조건적인 혐오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니까요. 동성애자들은 결국, 혐오와 역겨움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1-1. 넌 내가 이성애자로 보이니?

당연히 나를 이성애자로 간주하고, 주변 사람들이 드러내는 혐오의 어록.

■어록1. 더러워

친한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이었다. 노래방 영상에서 서문탁의 <각인, 그 후> 라는 뮤직비디오가 나왔다.

뮤직비디오는 레즈비언 사이의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었다. 친구들은 일제히 “여자들끼리 뭐하는 거니?¹⁾ 재수 없다. 더러워.”라고 말했다.

10년 지기 친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다니. 너무 충격적이었다.

■어록2. 변태 아니야?

여자친구들끼리 함께 모인 자리였다. 한 아이가 내 친구 중에 남자 연예인을 심하게 좋아하는 애가 있다며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남자 연예인 좋아하는 게 뭐 어때~”라고 답변하자, 그 아이가 “내 친구, 개가 남잔데?”라고 말했다. 방금 전까지 연예인 좋아하는 게 뭐 어떠냐 하던 아이들이

1) 삼각관계라잖아 -_-

순식간에

“개, 이상하다. 변태 아니야?²⁾”

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어록3. 밥 맛 떨어진다

친척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TV에 홍석천씨가 나왔다. 삼촌은 밥맛이 떨어진다고 버럭 고함을 쳤다.

“토할 것 같으니 빨리 채널 돌려!”

■어록4. 징그러워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있었던 일이다. 여자 둘이 들어와서 나란히 앉더니 가벼운 키스를 주고받았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이 몰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구경하며³⁾

“뭐야, 뭐야? 징그러워~”

라고 쑥덕거렸다.

이성애자들은 더 심한 스킨십도 많이 했는데, 유독 레즈비언에게만 징그럽다느니 쫓아 내자느니 심하게 말을

2) 동성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동성애자는 아니라고요. 게다가 동성애자가 왜 변태야? 애벌레가 나비되는 것도 아니고..

3) 관음증 있나? 시선도 폭력이라구!

했다.

■어록5. 어머니, 불결하게

직장에서 야유회를 갔다.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노란색 카디건을 입고 야유회에 참석한 나. 우연인지 팀장님도 내 카디건 색깔과 같은 노란색 스웨터를 입고 나왔다. 동료들이 “너랑 팀장님이랑 커플룩이다~”라고 농담을 던지길래, 나는 팀장님께 가서 “팀장님, 저랑 팀장님이랑 커플이래요!”라며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팀장님은

“어머니, 불결하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⁴⁾!”

라고 정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무안하기도 하고, 바로 내가 그 불결한 사람이라는 생각⁵⁾에 쓸쓸하기도 했다.

■어록6. 너네도 조심해

여자친구들과 함께 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이런 저런 정보를 수집하던 중이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생님이 여행을 가면 조심할 게 있다며

“여자들끼리 손잡고 다니면 안 돼. 그럼 그 나라 레즈비언들이 너네도 레즈비언인 줄 알고 잡아 간다⁶⁾”

4)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커플룩 못 입고 돌아다니는 거라구..

5) 아닌 거 아시죠? 예구.. 토닥토닥.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머리 기르고 사진기 들고 다니는 새끼들은 다 호모야. 그런 놈들한테 반하면 안 돼. 그 놈들은 예술가처럼 보여도 남자 좋아하는 더러운 새끼⁷⁾들이니까.”

라고 말했다.

“그 나라는 글러 먹었어. 호모⁸⁾, 레즈들 싫어서 해고하거나 손님으로 안 받으면 망해버려. 그 새끼들은 일부러 노리고 있다가 자기네 싫어하는 업소주인을 고소한다고! 그 나라가 그래.”

오랫동안 믿고 지내던 선생님께 그런 말을 들으니 무척 충격적이었다.

1-2. 그래, 나 레즈비언이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한 사람들이나 눈치 챈 사람들이 나에게 보인 혐오의 어록.

■어록7. 역겨워

동생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동생을 방으로 불러 내가 동성애자

6) 옹? 어디로 잡아가냐.

7) 어디다 대고 새끼야?! 버럭!

8) !!

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동생은

"역겨워⁹⁾"

라는 한 마디를 하고 방을 나갔다.

■어록8. 뽐뽐하게

고등학교 때 단짝친구인 두 아이들에 대해 레즈비언이라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둘이 뽐뽐하게 매점에 앉아서 서로 과자를 먹여주더라, 더럽게¹⁰⁾ 손잡고 다닌다, 안고 있는 것도 보았다, 한 명이 우니까 달래주었다 등등의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그러던 중, 한 명은 반 아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었다. 반 아이들이 책을 바닥에 내던지고 책상을 뒤집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댄 것이다¹¹⁾.

그 사건이 있은 후, 나는 누구에게도 커밍아웃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말을 들었다.

"너도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어록9. 정말 재수가 없어서

해외여행을 가서, 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던 어릴 적 친

9) 헉, 예의 없으시다 --

10) --;; 손잡는 게 더러워?

11) 이런 쌍쌍바 같으니라고! 이러한 혐오범죄는 처벌도 가능하다고!

구를 만나게 되었다. 무척 오랜만에 만난 것이라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친구는 이민을 와서 간호사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친구의 이민 생활이며 간호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친구는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가 참 좋아. 레즈비언도 잘 살 수 있고. 한 번은, 내참 웃겨서, 환자 중에 어떤 여자가 레즈비언인가 봐. 어떤 여자가 병문안을 왔는데, 꽃 선물하고 뽐뽐하고 안고 막 그러더라. 반지도 나누어 켜더라고. 정말 재수가 없어서¹²⁾."

나는 순간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완전히 굳은 내 표정을 보고 친구가 나의 정체성을 눈치 챌 것 인지, 자기 집에서 잘 수는 있지만 절대 한 방은 쓸 수 없다고 말을 했다¹³⁾.

■어록10. 그 한 명이 제정신

‘언니, 저 언니가 좋아요.’

선배에게 고백을 했다. 그러자 선배는 혼계를 하기 시작했다. 그건 안 되는 일이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블라블라~ 동성애자, 레즈비언이라는 말도 언급하기 싫다는 듯 시종일관 ‘그 거’라고 표현했다. 저는 선배에게 "다른 친구들은 다들

12) 보기 좋구만 *^__^*

13) 나도 너 같은 애랑 한 방 쓰기 싫어.

이상하지 않다고 했어요. 나쁜 게 아니라며 이해해줬어요. 한 명만 빼고는요." 라고 대응했고, 그러자 그 선배가 하는 말.

"그 한 명이 제 정신인 거야¹⁴⁾!"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상처를 많이 받았다.

■어록11. 너랑 친구 안 해

친구를 통해 이름을 알고 있던 이반 아이랑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와 같은 이반이 있다는 게 기뻐서,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워낙 레즈비언인 게 소문이 나 있어서 좀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그 친구 이야기가 나왔다. 이미 대학 내에서도 그 친구가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퍼져있던 상황.

‘더럽다’, ‘가까이 지내기 싫다’, ‘이해가 안 된다¹⁵⁾’는 이야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나는 같은 이반으로서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이반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도 더럽고 나쁜 게 아니라 식으로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모두 날 특이하고 이상한 아이로 쳐다보았다. 그 중 한 아이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너 레즈지?"

14) 그 한 명이 정신 나간거야.

15) 동성애는 더러운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겠니.

라고 물었다. 나는 뜨끔했지만, 한편으로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장난처럼 ‘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친구가 바로

"그럼 너랑 친구 안 해¹⁶⁾."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때 정말 울고 싶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1-3.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길을 걷다가도 듣게 되는 동성애 혐오적인 어록.

■어록12. 여자끼리...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여자 둘이 키스하는 그림이 올라왔다¹⁷⁾. 그 게시물에 ‘여자끼리...’라는 댓글이 달렸다. 대놓고 혐오적이지는 않았지만, 글자 뒤에 붙은 ‘점점점¹⁸⁾’의 의미가 더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

■어록13. 미친 놈, 에이즈 걸려서 죽은 거 아냐?

길을 걷던 중이었다. 거리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장국영의 죽음

16) 이런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보냈나!

17) 오, 그 사이트 어디냐?

18) ... -_-;

에 관한 방송이 나오고 있어, 잠시 멈추어 서서 구경을 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렸다.

‘장국영 게이래.’, ‘미친 놈.’, ‘에이즈 걸려서 죽은 거 아냐?¹⁹⁾’등등. 장국영이 죽은 후 게이라는 소문이 떠돌자 절대 아니라며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반응했던 것도 슬프지만, 게이라고 하면 혐오하고 비난하는 것도 너무 끔찍한 것 같다²⁰⁾.

19) 게이=에이즈?? 아니거든!

20) 끄덕끄덕

2. 정신병, 연민

“저런 건 마음의 병 같은 거야.”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우리 동성애자들이 받는 혐오의 시선은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끔찍한 것은 '불쌍한 것들, 내가 고쳐줄게' 따위의 시선이 아닐까 합니다. 동성애 정체성이 비정상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안 됐다면 교정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이성애자들에게 말해주고 싶군요. 정말로 불쌍한 것은, 자신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사회에서 정해놓은 규범에 맞추어 이성애자로 사회화된 바로 당신들이라고!

■ 어록15. 밝게 살고 싶겠지, 안 됐어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놀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공공연하게

레즈비언으로 알려진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

개도 대학 가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대. 솔직히 자기도 여성스럽게 꾸미고 더 예쁘게, 밝게 살고 싶겠지. 안 됐어.”

친구들은 모두

"어떡해~ 너무 불쌍해"

하는 분위기였다.

■ 어록14. 고쳐주면 되잖아

심리 치료를 공부하는 친척 여동생과 함께 TV를 보던 중이었다. TV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삶을 다룬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다. 나는 쓸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났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친척 여동생이 먼저

“왜 저런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그러지? 저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라고 격분하는 것이었다. 나는 여동생의 말이 반갑고 신기해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그 아이의 이야기.

“저런 건 그냥 마음의 병 같은 거야. 고쳐주면 되잖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고쳐줘야 해.²¹⁾”

세상에. 고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정부차원에서 그랬다가

21) 앞의 말만 하하지..

는 동성애자들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다 아우팅 당할 것 아닌가. 사실 동성애에 대해 무조건 혐오하는 사람보다 정신병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더 짜증이 난다.

잠깐!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니에요.

호모포비아는 동성애에 대한 공포증을 뜻합니다. 그 증상 중 하나가 근거 없이 막연하게 동성애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동성애자에게 욕을 하거나 비방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보여 주는 증상이 바로 호모포비아적 증상입니다.

최근 호주 의학계에는 **동성애가 아니라, 이 호모포비아를 정신질환 목록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것 자체가 이상한 정서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보고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가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자주 묻는 질문 FAQ

■ 어록16. 교육의 피해자

수업시간에 나이 지긋한 선생님께서 한국의 교육현실에 대해 말씀하셨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여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교육을 잘못 받는 건 참 나쁜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²²⁾.”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아이들이 모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있자 선생님이 부연설명을 달았다.

“그 왜 동성연애자들²³⁾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하지 말고 교육의 피해자로²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 봐야 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주 재치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끌어다 붙이기도 정도껏 해야지, 대체 교육과 동성애자를 왜 연결시키는지 화가 났다. 그리고, 이런 수업과 이런 교육이 '정말' 나쁜 거 아닌가!²⁵⁾

22) ?? 어떤 행동?

23) 심지어 동성애자도 아니고 동성연애자래.. --

24) 그대야 말로 잘못된 교육의 피해자!

25) 맞아요, 맞아요!

3. 종교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핏대 세우며 외치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창조했다고 믿는 창조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깊은 슬픔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사실을. 내가 원해서 동성애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런 저주를 받고 태어난 것일까 가슴을 쥐어뜯고 신을 원망한다는 사실을.

인간의 잘못된 (혹은 의도되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성경 해석 때문에 사람들은 의기양양 합니다. 그들에겐 동성애자를 짓밟고, 무찌르고, 죽여도 될 너무도 정당한 이유, 성경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잔혹한 무기가 정말 신의 말씀일까요?

백인이 아메리카에 살던 인디언들을 대량 살상하면서도 당당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구절 때문이죠. 당연한 듯이 여자를 물건 취급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경 구절 때문이고요. 흑인은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차별과 악법이 바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녀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아 보이네요.

■어록17. 예수님을 영접해보세요.

활동하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일단 참신한 교회에 나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럼 당신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기쁨만 넘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늘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 안 믿는다고 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려 하시죠.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해보세요. 모두가 구원 받을 것입니다.²⁶⁾]

나는 댓글을 달았다.

“당신이 여기에 이런 글 안 올리는 게 우리의 구원이거든~!²⁷⁾”

26) 응.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상관없이.

27) 내 말이~

■어록18. 사탄

몇 년 전, 아는 언니가 내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 언니는 내게

"동성애는 더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오, 웬일이야. 하지만 다음 말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어. 동성연애자²⁸⁾나 트랜스젠더들은 우리가 혐오하고 싫어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들이라고...²⁹⁾ 그들은 사탄³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고, 우리 같은 기독교인이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야³¹⁾."

그 앞에선 꼬덕꼬덕 해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어떡하나 난 그대들이 더 불쌍해 보이는 것을...

■어록19. 커다란 죄를 진 영혼

한 때 티비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사이비종교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친한 친구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간 것이었는데 알아

28) ‘동성애자’삼!

29) Oh, my God!

30) 진정한 사탄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모는 기독교라고!

31) 쫓쫓.. 내가 언니를 도와줄게(측은..)

보니 그 곳이 그 유명한 JMS라는 것을 알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쳐 나왔었다. 바로 그 곳에서 겪은 일이다.

성경공부 시간에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나 천당에 가게 되는데 동성애자나 살인자 같은 커다란 죄를 진 영혼은 아무리 신을 열심히 믿어도 천당에 못 들어가고³²⁾ 지옥문과 천당문 사이를 오가야 된다는 것이었다. 동성애를 힘주어 발음하시던 그 집사님 얼굴은 입에 담기도 더러운 말이라고 생각하는 듯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³³⁾

동성애에 관해서만은 기독교와 사이비가 굳은 결속이라도 다지는 모양이다³⁴⁾.

32) 완전 헛소리.

33) 제발 그 면상 좀 치워.

34) 우리도 종교하나 만들어야겠다 찌찌..

4. 자연, 사회질서에 역행

“동성애는 종족보존의 본성에 반하지요.”

동성애는 자연에 반(反)한다고요? 이성만을 좋아해야 하고 이성과 교제하고 섹스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통념이야말로 자연스럽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상대의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워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동성을 향한 사랑이든, 이성을 향한 사랑이든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성애가 사회 질서에 역행한다니요?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 찬/반 논쟁 따위나 벌이고 있는 사회 질서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죠.

■ 어록20. 찬성하는가, 반대 하는가

고등학교 3학년 수업시간이었다.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

를 꺼내셨다.

만일 대학교 입학 면접 때

"동성애에 찬성하는가, 반대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고.

난 도대체 동성애가 누가 찬성하고 말고 할 문제³⁵⁾인가 생각하며 화가 났지만, 어쨌든.

잠시 후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찬성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결국 사람의 본성은 개체유지와 종족보존 두 가지예요. 동성애는 개체유지의 본성과는 무관하지만 종족보존의 본성에 반하죠.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대답은 있을 수 없는 것이예요."³⁶⁾ 라고!!

■ 어록21. 차라리 애를 배서 오지

엄마에게 레즈비언임을 들킨 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너 같은 자식은 둔 적 없다며 남남으로 살자고 말하셨다.

엄마에게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난 아무리 엄마가 그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야!" 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내게

35) 맞아요. 동성애는 찬반 차원이 아니죠.

36) 선생님.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지 말으시라고.

"살인자³⁷⁾가 사람 죽여 놓고 자긴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하시며 차라리 애를 배서 오거나 도둑질을 했다면³⁸⁾ 지금 보다는 덜 충격이었을 거라며 절규하셨다.

37) !!

38) 어머니.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살인자와 동등한 취급(오히려 더 혐오스러운)을 받아야 한다니요..

5. 연애와 섹스에 목매다는!

“잔 거죠. 왜들 호모들은 그 모양인지. 쫓.”

흔히들 동성애자에게는 성적 욕구만 있는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모든 동성을 다 연애상대로 보지도 않죠!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이끌림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연애와 섹스에 목매단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이지요. 이것은 이성애 중심적 사회에서 일탈 행동의 범주 안에 동성애를 넣어 이성애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한 효과에 따른 것이에요.

■ 어록22. 언니 난 언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는 동생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나 동성애자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른다.

"언니, 난 언제³⁹⁾?"

그 동생은 동성애자들은 연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걸 자기에게 말했으니 사귀자고 하는 것으로⁴⁰⁾ 알았다고 한다. 나 참.

■ 어록23. 잘 살고 있는 애들 꼬시지 마

내가 동성애자인 걸 알고 계시는 우리 엄마가 그러셨다.

"너 괜히 여자애들 꼬시고 그러지 마라.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애들 인생 망치지 말라고. 알았지?⁴¹⁾"

내가 말했다.

"엄마, 내가 꼬시는 게 아니고, 개들이 꼬시는 거야. 억울해⁴²⁾."

^^

■ 어록24. 조심해야 돼요

단어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다.

39) 앵?

40) 나도 취향이 있다규!

41) 동성애자는 무조건 동성과 사귀고 섹스하려는 생각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42) 차라리 대놓고 꼬실 수라도 있다면. 썸.

선생님께서 미국의 고교나 대학의 여성모임, 남성모임에 관한 단어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런데 가면 레즈비언이 많죠. 조심해야 되요⁴³⁾"

이러시는 것이었다.

"막 가족바지에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죠⁴⁴⁾."

"남성모임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더니 갑자기,

"미국에는 게이들이 공원에 많죠⁴⁵⁾, 공원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들은 거의 짝을 기다리는 게이라고 보면 되요. 그래서 공원에 갈 때는 조심해야 되요. 꼭 그룹으로 다니세요."

나는 나지막이 '치!'라고 하고 말수밖에. 그 교실에 있던 70명 넘는 학생들이 박장대소를 했기 때문이다.

아니, 다 좋아. 여성모임에 레즈비언이 많을 수 있지. 그런데 게이얘기는 진짜 켄다. 공원에 갔다가 짝 만나러 나온 게이에게 성폭력 위협이라도 당할 거라고 생각하나보지?

정말 외국 갔다 와서 외국에 대한 것이든 우리나라에 대한 것이든,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을 퍼트리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정말 재수 없다.⁴⁶⁾

43) 헉. 조심은 왜? 잡아먹기라도 하나

44) 모라고? 이성애자는 안 그러고 다니냐?

45)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 공원에만 있겠냐?

■어록25. 어찌나 쫓아다니던지

발레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날은 발레학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식 날이었다. 선생님 그리고 발레 배우는 분들이 함께 닭과 맥주를 먹으러 갔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전 한국무용 하시는 남자 무용수분들께서 정말 여성스러운 걸 보고 혹시 발레리노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무용 쪽엔 호모가 많는지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선

"한국무용은 남성적이지 않아요. 자신의 내면까지 여성화를 시켜야 춤을 출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쪽엔 호모⁴⁷⁾가 엄청 많아요. 하지만 발레는 그렇지 않죠 남성적이니까요⁴⁸⁾.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무용 선생님 중 호모가 있었는데, 절 어찌나 쫓아다니던 지요. 개인 과외 구해 줄 테니까 뭐 하라고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제가 뜬하니까 어느 날이던가 후배 녀석에게로 관심을 옮기더니... 글썄 그 후배 녀석이 얼마 안 있어서 브랜드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된 거죠?

46) 미투!

47) 호모? 호모사피언스 말씀이신가?

48) 오, 발레는 남성적인 거였군요.

"어떻게 되긴요. 잔거죠. 왜들 호모⁴⁹⁾들은 그 모양인지. 쫓."

"에그 망측해라. 진짜 불결하네...그런데 그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는 주역은 항상 케이⁵⁰⁾가 맞고 발레단원 중 80%정도가 게⁵¹⁾이라면서요?"

"주제가 동성애라 그렇지,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그 발레단을 비하⁵²⁾시키는 말이죠."

49) 이제 그만 -_-

50) 그래, 차라리 게이라 해라!

51)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52) 웃기서. 동성애자란 말이 왜 욕이되어야 하는지, 억울하다 진짜.

6. 원인설

"네가 여대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여중, 여고, 여대를 나오면 레즈비언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동성애의 원인을 묻는 것 자체가 동성애를 질병으로 취급한다는 증거죠. 이성애만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니까 동성애에 대한 근거 없는 가설들이 마치 진짜인양 버젓이 신문이나 티비에 소개되기도 해요. 동성애의 원인설을 주장하는 건 오류이며 오해이지요. 바꾸어 말해볼까요? 이성애자 여러분, 어찌다 이성애자가 되셨나요?!

■어록26. 안 좋은 영향

내 직장 동료 B에게 커밍아웃할 때 받았던 질문이다.

"혹시 어렸을 때 남자들한테 뭐 안 좋은 일 당한 거 있어?"

"아빠가 당신에게 혹시 뭐 안 좋은 영향 끼친 거 아냐⁵³⁾?"

"남자처럼 하고 다녀서 그렇게 된 거 아냐? 등등

어찌나 합당한(?) 원인을 찾고 싶어 하던지.. 찌찌54)

■ 어록 27. 여대

대학에 와서 친했던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그 친구는,

"네가 여대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55)." 라고 하더라.

■ 어록 28. 이성애에 대한 공포증

대학시절, 교수가 갑자기

‘옥스포드나 그런 명문대학들에는 동성애자가 많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더니 매우 냉철한 태도로 분석을 했다. 그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명문대에 다니는 애들은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들을 나온 경우

가 많고, 또 그런 학교들은 남학교 혹은 여학교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애들이 대학에 가서 이성애와 원활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

고, 이성애에 대한 공포증56)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서 동성애자가

53) 그럼 세상 대부분 여자 남자는 죄다 동성애자가 됐겠다.

54) 그러게 말이에요 찌찌

55) 도대체 왜! -- 여대 다니면 다 동성애자가 되는 거니?

56) 나 참. ‘이성애 공포증=동성애’가 아니거든?

된다.’

허허. 교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 천지배까리로

넌려야겠다!

7. 성병, 에이즈

“똥독이 올라서 그래.”

동성애로 인해 성병이나 에이즈에 걸린다고요? 현재 성병이나 에이즈의 감염경로는 해당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나 수혈로 인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꼭 성관계에 집착하는 건 아니라고요!!!

■ 어록29. 동성 친구를 좋아하면 성병

특수교육(장애아동)에 관한 교양수업을 듣던 중의 일이다.

정신지체 부분을 배우는데 정신지체 아동의 원인이 임신한 여성

이 성병에 걸렸을 경우 가능하다는

“여자가 좋다고 동성 친구들을 더 좋아하면 성병에 걸릴 수 있다”

는 막말⁵⁷⁾을 하는 것이었다.

순간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웃었고 혼자 기분이 안 좋아졌다.

후에 전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를 보고 문자로

‘동성교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병에 걸리진 않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 어록30. 똥독

중학교 때 선생님이 말한 말이다.

"호모(게이?)들이 왜 에이즈에 걸리는 줄 아니?"

하며 물으면서

"똥독이 올라서 그래..."

라고 말했다.

순간 아이들은 웃었고 나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그 말은 한 사람은 젊은 여교사였다.

잠깐! 바로알자 AIDS

AIDS는 감염인의 체액(정액, 질 분비물, 혈액, 모유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경우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57) 정말, 막말을 하시는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기나 음식으로는 전염되지 않고요.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HIV감염인과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감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HIV감염인은 이성애자일 수도 있고 동성애자일 수도 있으며, 어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으며,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자주 묻는 질문 FAQ

8. 레스보포비아

“여자들이 하는 것은 웬지 더러울 것 같아.”

레스보포비아는 레즈비언 혹은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혐오적으로 칭하는 말입니다.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와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얍! 얍! 레스보포비아 호모포비아 모두모두 사라져라~

■어록31. 여자들끼리는 웬지 더러워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그 중 한 명이 나에게

"야오이물을 많이 봐서 남자들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자들이 하는 것은 웬지⁵⁸⁾ 더러울 것 같아⁵⁹⁾"

58) 추측!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59) 깨끗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난 어이가 없었다.

■어록32. 레즈비언은 깨끗하잖아

자기가 레즈비언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던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나에게 진지하게 말하길

“레즈비언은 깨끗하잖아?”

라고 했다.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마 그 친구도 레즈비언은 섹스를 못 한다고 생각했나 보다.

■어록32. 끔찍하더라

외국에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여행 중에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를 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그 친구는 내가 레즈비언인 줄 몰랐기에 더 심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게이들은 정말 유머도 많고 패션 감각도 독특해서 좋아. 나도 게이 친구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퍼레이드에서 레즈비언을 보니까, 온통 짧은 머리에 험악하게 생겼고 진짜 썸끔찍하더라.”

으이그. 너한테 게이 친구는 없는지 몰라도, 지금 네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내가 바로 레즈비언 친구라구.

9. 동성애는 한 때

"그래. 결혼은 남자랑 해야지."

이성애자들은 잠시 잠깐, 한 때의 경험으로 이성을 사귀나요?

이성애가 한 때가 아니듯이 동성애도 사춘기 한 때의 감정이 아닙니다. 결혼을 반드시 이성(異性)과 해야 한다든지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어록33. 이제 너도 정신 차려

애인과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던 이성애자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에 친구가 위로랍시고

"그래 이제 너도 정신 차리고 남자친구 사귀⁶⁰⁾. 우리 나이가 몇 인데..."

60) 정신차리고 여자친구 사귀면 안되요?

하는 것이다.

순간 술이 확 깨고 화가 났다.

■어록34. 아직 짝을 못 만나서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친구는

"언젠가 네 짝을 만나겠지. 아직 짝을 못 만나서 그런 걸 거야⁶¹⁾" 고 말하는 것이었다.

뭐라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기분이 안 좋아졌다.

꼭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이런 식으로 짝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어록35. 결혼은 남자랑 해야지

커밍아웃을 한 친구들과 영화를 보던 중의 일이다.

동성애자 주인공이 이성애결혼을 하는 장면에서 친구들은 무심코

"그래... 결혼은 남자랑 해야지⁶²⁾..."

하는 것이다.

순간 할 말을 잃었다.

61) 그래 곧 여자 짝을 만날 거야 히히~

62) 결혼은 남자랑! 사랑은 여자랑 하면 되나요?! ㄱ

10. 동성애자 당사자의 혐오 내면화

“솔직히 여자끼리 사귀는 게 자랑도 아닌데.”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별나라 행성에 사는 게 아니고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퍼져있는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레즈비언은 동성애자인데다가 여성이기 때문에 두 배로 자주, 그리고 혹독하게 혐오의 대상이 되곤 하죠. 그러다보니 안타깝게도 부정적 인식이 머리 깊숙이 박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혐오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무척이나 몰아내기 힘든 녀석이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선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죠?

■어록36. 불효

요즘 저랑 가장 친한 이반 친구가 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 하루에도 몇 개씩이나 알바를 뛰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

습을 보자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언제까지 저렇게 살려고 저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마음 한 구석에서 생겨나곤 합니다.

저 역시 최근까지 사귀던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저 자신을 이반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만, 그래도 30대가 되면 남자랑 결혼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결혼까지 하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너무 불효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친구에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것보다도 제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⁶³⁾

■ 어록37. 남들도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애인과 사귀지 1년 쯤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푹 빠져있는데 요즘엔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같은 것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요. 뭐라고 해야 할까... 애인이 너무 남자같이 하고 다니는 게 싫습니다. 남들도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솔직히 여자끼리 사귀다는 게 자랑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티를 내고 다녀야 하는지 불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좀 기르고 치마도 입어보면 어때?⁶⁴⁾”

하고 물으면 애인은 자신이 창피하냐며 화를 냅니다. 그건 아니

63) 힘내요!

64) 애인이 속상했겠다~!

지만 그렇다고 계속 마음 불편한 채로 밖에서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1. 외모

“왼쪽만 뚫음 레즈비언이라는데.”

레즈비언은 특정한 스타일을 선호할까요, 아닐까요? 혹은, 덜 여성스럽고 터프하게 입는 게 마쵸성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글썄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더 신경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타일을 고수할 수도 있겠죠. 어렵군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들 자체가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레즈비언처럼, 남자처럼, 여자처럼, 혹은 나처럼. 내가 좋은 대로 하고 다니게, 그 입을 닫으라!

■ 어록38. 짧은 머리

학교(여대) 정문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정문에 서있던 어떤 남자가 옆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는 머리 짧으면 무조건 다 의심해봐야 한다니까⁶⁵⁾."

■ 어록39.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아는 사람이 자신에게 커밍아웃을 했노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친구 왈,

"사실 전부터 알고 있었어.⁶⁶⁾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

■ 어록40. 스타일

어느 날 일반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가까운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다. 우리는 스스럼없이 팔짱을 끼고 그간에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근처의 밥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그리도 다정해 보였는지 아님 서로의 스타일(외모)때문에 전형적인 레즈비언 커플이라고 추측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주 걸어오던 아저씨께서

"내가 레즈비언 꼴 보기 싫어서 이곳에 잘 안 나온다.⁶⁷⁾"

라고 큰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지나가시더라.

그 황당함이란!

65) 범인 색출하십니까? 신경 쓰시죠!

66) 어렵게 한 커밍아웃을 가십거리로 만들어 버리는군요!

67) 오지 마세요, 제발!! 저희도 무례한 아저씨 싫어요!

그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지만 잡은 손 안 놓아주고 더 짹 잡
아주던 친구⁶⁸⁾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후에 생각하
니 죄진 것도 아닌데 좀 더 당당하게 얼굴 못 든 내가 밍기도
했다.

■ 어록41. 한 쪽 귀걸이

커어다란 끼리끼리 배지를 3개씩 달고 다닐 때도⁶⁹⁾ 아무 말 없
던 사람들이 한쪽 귀에 딸랑거리는 별 귀고리 하고 가니까

"너 왜 한쪽만 뚫었어?"

하고 자꾸 물어 봤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응 튀고 싶었어."

라고 대꾸했는데, 오늘 동아리 전체회의 시간에 갔더니 동아리
언니께서

"왼쪽만 뚫음 레즈비언이라는데⁷⁰⁾... 너 왜 한쪽만 뚫었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당황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연극부인지
라, 태연하게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마구 졸라대니까 한 언니가

68) 친구분 멋지시네요!

69) 하하!!

70) 차라리 그게 사실이면 좋겠네요. 서로 알아보게!

"응, 그럼 여자라도 사귀어⁷¹⁾~"

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언니가

"귀고리 한쪽만 한 후배한테 여자사귀라고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했다.

그리고 오늘이 3학년 회장언니께서 물러나시는(?) 날이라 회의
 끝나고 회장언니께

"언니~ 사랑해요!"

라 했더니 친구 녀석이

"귀고리 한쪽만 한 녀석이... 회장언니 당황하시잖아⁷²⁾"

라고 하는 게 아닌가.

71) '여자라도' 라니요!

72) 근데 은근히 학원 로맨스 필이~ --;;

12. 이성애 중심주의

“에이, 어떻게 그렇게 팔아요?! 안 돼요!”

오래전 왼손잡이는 ‘이상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고유의 특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듯합니다. 왼손으로 공부를 하고 밥숟가락을 드는 것은 공부를 하거나 밥을 먹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왼손잡이가 마치 ‘정상’이 아닌 것처럼 금기시되어 온 역사가 있지요. 우리 사회에서 왼손잡이에게는 오른손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했듯이, 동성애자에게는 이성애자가 되라며 강요합니다. 모든 시설들이 오른손잡이에 맞춰져있듯 세상 대부분의 체제나 이데올로기는 이성애에 맞춰져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숨 쉬고 살아있지만 마치 ‘좀비’처럼 동성애자를 소외·배제시키게 되는 것이 이성애 중심주의입니다. 이성애만이 삶의 정답이나 표준이 되지 않다는 건, 이미 살아가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이성애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록42. 남자-여자 한 세트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앞에 새로 생긴 액세서리 가게에 들렀다 온 친구는 황당해하고 있었어요. 친구는 흥분하면서 가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 (평소 누구에게는 "자기"라는 호칭을 잘 쓰기에 동행한 친구2에게) '자기'⁷³⁾, 이진 어때?

가게주인과 손님들:(일제히 친구1과 친구2를 이상하게⁷⁴⁾ 쳐다본다)

'자기'라는 말이 보통 이성애자 커플이 주로 쓰는 호칭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그 사람들은 친구1의 '자기'라는 말이 '이상하게'⁷⁵⁾ 느껴졌나 봅니다.

친구1과 친구2가 마치 동성애자 커플인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지만, 친구1은 친하게 지내는 레즈비언 커플에게 줄 선물을 사려던 차에 정말 예쁜 열쇠고리를 골랐습니다.

기분 나쁜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친구1 그러나

친구1: 저, 여자 모양 남자 모양 한 세트인데, 여자 모양 열쇠고리 두 개를 세트로 살 수 없나요?

73) 친구들끼리도 호칭으로 종종 쓰기도 하죠!

74) 아니! 왜?

75) 까칠한 주인이로군요!

가게 주인: (정색하며) 에이 어떻게 그렇게 팔아요?! 안 돼요⁷⁶⁾!

정말 화가 나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1에게 조언을 했더랍니다.

나: (썩쓸해하며) 친구1아, 다음에는 그냥 낱개로는 안파냐고 물어보는 게 좋겠다⁷⁷⁾.

76) 안되면 안 되는거지 왜 오바하면서 소리를 지르세요?! 이상하시네~

77) 거참! 기분이 무지 나쁠것군요 ㅜㅜ

13. 레즈비언=페미니스트

“레즈비언이라 그런지 넌 너무 급진적이야!”

레즈비언이어도 페미니즘을 모르며, 페미니스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레즈비언이 ‘급진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성애자들도 관심 영역과 생각이 너무나 다양한 것처럼 레즈비언들 역시 살아온 삶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심영역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레즈비언의 이야기가 모든 레즈비언의 이야기인 것처럼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레즈비언을 고립시키고 배제한 역사가 있는 만큼 레즈비언 고유의 문화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문화라는 것은 모든 레즈비언의 생각을 하나로 고정시키는 문화가 아닌, 여성으로서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힘을 주는 공간인 것입니다. 자아, 역질문을 해봅시다. “아무래도 너는 이성애자라서 너무 고리타분해”, “레즈비언도 아니면서 어떻게 여성주의를 고민할 수 있어?” 과연 가능한 질문들일까요? 정말 어리석은, 우문현답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문’을 하기 전에 ‘현답’을 스스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록43. 레즈비언 중 페미니스트 인구

(과 친구들과 공창제 주제로 토론 중)

남학생들: 야야, 그래도 공창제가 되어야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 거야⁷⁸⁾.

나: (기막혀하며) 남자들의 성욕은 정말 억제되지 못하는 거냐? 공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여성 인권 침해야⁷⁹⁾!

남학생들: 거참, 레즈비언이라 그런지 넌 너무 급진적이야⁸⁰⁾!

공창제를 반대하는 것이 급진적이라는 것도 우습고, 제 레즈비언 정체성 얘기가 거론된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매 수업 때마다 제가 "아내 강간은 범죄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그건 제가 레즈비언이라서 나온 말로 치부해버립니다.

레즈비언들이 하는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⁸¹⁾ 그저 '너무 앞서간' 말로만 듣는 것이지요.

한번은 여성학 강의 시간에 내가 레즈비언인 걸 알고 있는 선생님이 제게 그랬습니다.

78) 어이가 없군요! 수요가 없어져야 성매매도 사라지고 성범죄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헛

79)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80) 맙소사! 웬 성급화의 오류! 레즈비언이 급진적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걸까?

81) 맞아요! 제대로 듣지 않고 그저 '레즈비언의 의견'이려니 치부해버리죠. 아 정말 너무 싫습니다.

선생님: "레즈비언들 중에 페미니스트 인구가 많죠?"

나: "글쎄요, 사실 아주 극소수 아닐까요? 동성애자 인구가 얼마나 많은 데요"

선생님: (화들짝 놀라며)"레즈비언들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구요? 난 거의 대부분의 레즈비언들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했는데⁸²⁾"

레즈비언들이 모두 페미니스트여야 하나요?

페미니스트가 아니면 레즈비언이 아닌 건지, 선생님의 질문과 반응은 정말 혼란스러움을 가득 안겨줍니다.

서구의 기존 여성학 관련 책 속이 아닌 현실 속의 레즈비언들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더군요.

82) 아니 왜요? 사실 대부분 레즈비언들이 '페미니스트적'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가지만 그건 페미니스트라서 그런 게 아닌 듯합니다. 페미니즘을 알고 살아가는 여성들 흔하지 않다고요.

14. 기타

"그게 뭐 어때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아직도 남아 있는 혐오의 어록들. 제외하기는 아쉬워 기타로 모아 봤습니다. 마지막 코너, 기타! 모두들 즐겁게 감상하세요~

■ 어록44.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학교 보건소에 애인과 함께 약을 타오던 중)

뒤에 있던 아이: "재 누구누군(제 실명)데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동성애자다⁸³⁾, 옆에 있는 애는 사귀는 사람이야."

이렇게 수근거리던 것을 제 친구가 옆에서 듣다가 아웃팅 조심하라며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순간 눈앞이 노랗게 되면서 아찔했습니다. 지금은 놀란 게

83) 어맛! 아우팅에 심지어 비아냥까지! 아놔 -_-a

진정되었지만, 그 와중에 멀쩡하게 생겼다니 고마워할 일인지⁸⁴⁾. 휴우

어떻게 학교 생활해야할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 어록45. 그게 뭐 어때

나: (학교 후배에게) "나 동성애자야!"

후배: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서) "그게 뭐 어때서⁸⁵⁾?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자신이 호모포박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한 오버였는지 아님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그런 격한 반응 때문에 웬지 마음은 무겁더군요⁸⁶⁾.

■ 어록46. 뭐야 게이

나도 레즈비언이지만 TV에서 게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혹시 들킬까 싶어서 내가 나서서 욕한다. 다른 친구들 가만히 있는데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기어코 끄집어내서 마구 씹

84) 레즈비언이 다 뽀 달리거나 희한하게 생겼는지 아나 봐요? 맙소사, 너 무나 평범한데 말이죠.

85) 아이코! 깜짝이야. 소리 지르는 건 너무 무서워요 (아호호)

86) 마음 크게 먹고 커밍아웃 하셨을 텐데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후배가 차라리 솔직하게 표현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당;;

게 된다.

가슴이 뜨끔 뜨끔하면서도 길가다도 남자들끼리 손잡는 등의 모습을 보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옆에 애한테

"뭐야~ 게이야?"

라고 말 꺼내게 되는 심리는 뭘까? 남자들하고 부딪혀도 소름 돋거나 징그럽지 않은 걸 보면 남성혐오증은 아닌 거 같은데, 게이들 보면 징그럽고 꺼림칙한 마음이 드는 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다.

내가 부분적인 호모포비아인 걸까?

내안의 호모포비아

한 레즈비언 포털사이트에서 내 안의 호모포비아에 대한 레즈비언들의 생각을 물었고, 많은 레즈비언들이 댓글로 그동안 하고 싶던 얘기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 곳곳에 거칠고 분노에 찬 말들이 맨 얼굴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 몇몇은 상담소의 공식입장과는 다르지만 레즈비언들의 생생한 생각과 마음이 담겨있기에 그 점을 소중히 여기고 거의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제부터 공감가고, 속 시원하고, 재치 넘치는 레즈비언 언니들의 댓글로 속풀이 하세요!

■ 내 안의 호모포비아 댓글 정리

1. 사귀는 사람들이 힘들어 보일 때
2. 예쁜 척, 잘난 척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레즈비언 주제에...'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3. 레즈비언들은 대부분 집안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라는 편견이 있어요.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특히 남자형제, 친척, 아버지랑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래서 이반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요. 그래서인지 부치를 만나게 되면 일부러 피하게 되요.)
4. 나도 부치지만, 외모가 너무 남자 같은 부치를 보면 흠칫 놀라면서 뒷걸음쳐질 때요. (스타일로 드러나는 부치들, 눈에 확 띄는 남성적인 스타일의 부치들은 피하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스타일일 테지만 거부스러워서요. 이런 것도 호모포비아적인 생각이려나요.)
5. 좋아하는 사람이 단지 내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남자를 만날 때요.
6. 레즈비언은 공부도 못하고 하는 일이라곤 알바 따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런 생각들 때 저한테도 기분이 나빠요.
7. 가끔 입버릇 나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이반들을 보면 "레즈비언들은 다 저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

- 요.
8. 여러 사람을 쉽게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바닥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혼자 놀라요.
 9. 레즈비언은 괜찮지만, 게이들은 정말 소름끼치도록 아니라고 생각할 때요.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나도 억지스러운 거 같지만요.
 10. 꼭 못생긴 것들이 레즈비언이란 말을 들었을 때.
 11. 일부러 남자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그러나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약간 역겨움을 느낍니다. 조소와 함께요.
 12. 일하지 않고 외모만 남성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일부 아주머니들에게서 "남자가 상대해주지 않아서 저러나?"하고 못된 생각을 했어요. 너무 부끄럽군요.
 13. 레즈비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스트레이트는 건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박혀있어요. 사회문제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연애의 안 좋은 경험들로 인해 점점 혐오감이 드는 것 같아요. 동성애자에서 동성연애자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14. 길가는 커플을 보면서 부치가 조그마네. <- 남자가 여자보다 작아 라는 식의 생각.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도, 죽을 힘 다해서 앤의 짐을 짊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무의식.<- 힘 썬 남자(?)가 들어야지? 섹스하면 삽입이다. 라는 생각. 트리나 오랄을 하다보면 이것이 꼭 섹스의 완성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등. 저 사람은

어쩌다 저 여자를 사겼을까? 등등...

15. 왜 이반이 되었을까 의문들 때! (전 스스로 난 왜 동성애자 인걸까 라고 한 적도 있어요.)
16. 정말로 똥똥하고 못생긴 사람이 클럽 가서 이쁜 애들만 밝히고 추근덕 거릴 때 일반인이 안 사겨주니깐 이반이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7. 남자들도 많이 따를 텐데, 어떤 계기로 이반을 되었을까? 이런 생각 들 때 종종 놀라곤 해요.
18. 에이즈란 단어를 들었을 때 자연스레 동성애를 연상시킬 때요. 흑흑
19. 전 이쪽이면서도 동생이 혹시 동성애의 길(?)로 빠져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으박지르고 싶은...아이러니하네요.
20. 가끔 길에서 쩌한 스킨쉽하는 어린 레즈비언 커플을 보고는 더러워. 라고 생각한 적도 있구요. 저도 애인이 있지만 혼자 있는 이반들보다는 커플끼리 있는 사람들 보고 징그럽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내가 사귄 땐 몰랐는데 다른 사람 사귀는 거 보면 거부감들 때 있어요.) (저보다 연상인 그녀 친구커플을 봤는데, 기분이 묘해서 뭔가 거부감이 들었어요. 여자도 참 사귀고, 그녀에 대한 막막한 거부감과 여잘 사귀는 거에 대한 나의 공포감 때문인 거 같았어요.)
21. 이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수인 게 합당한 거 같아요.

남여의 성관계가 더 자연스럽고 동성애는 종을 보존하려는 생물학적인 법칙에 위배되잖아요.

22. 터프한 척 하는 부치, 다리 벌리고 앉아 있는 이반들을 보면...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하는 생각이 드는 나...
23. 저는 호모포비아보단 저보다 더 소수자들에 대한 포비아적 생각?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인터섹슈얼이나 트랜스섹슈얼, 아니면 성전환한 레즈비언이나, 게이? 저도 소수면서 그런 소수자들에게 편견을 갖는 게 아이러니한 거 같아요. 그런 편견 없앨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 내게 호모포비아를 내비췄던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댓글 정리

1. 호모는 정신병이 아니라 사회현상이고 호모포비아는 정신병이라던데 너 병원한번 가봐라. 그렇게 혐오감 갖는 것도 썩 이상하다 싶지 않니?
2.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 아니냐?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 있냐?
3. 무식한 사람이 아는 체 편견 갖는 게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이야.
4. 남자와의 연애, 남자와의 결혼만이 지상낙원은 아니잖아? 넌

남자친구 사귀면서 느끼는 감정이 남다른지?

5. 걱정 마 나도 보는 눈이 있는데 너 좋다고는 안 할 테니까.
6. 니보다 낫거당?
7. 너나 잘하삼
8.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더럽지도 않고 너희와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나 발라먹는 너희들과는 다르게 이쁘게 사랑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 너희가 말하는 사랑은 얼마나 깨끗하고 고결해서 그 더러운 입으로 욕하든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너의 지나간 사랑을 대고 생각해 봐.
9. 너 잘돼나 보자ㅋㅋ
10. 음... 너한테 피해 끼치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관심 꺼주면 고맙겠는데.
(부탁한다. 나한테 관심 꺼주라.)
11. 그런 눈빛, 벌레 보는듯한 행동, 이젠 익숙해.
12. 니 밥그릇 채 갈까봐 두려운 게냐.
13. 남자보다 잘났으니까 나한테 왔겠지. 띠꺼우면 너도 잘난 여자 하던가.
14. 너...귀엽다? ㅎㅎㅎ(커밍 후에 이러면 보통 나한테서 도망가 버리던데...)
15. 넌 편견 덩어리구나.
16. 나는 너 안 좋아하니까 걱정 말아라. 나 말고도 인류의 번

영과 존속을 위해 힘써줄 사람들은 많다.

17. 니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난 너 신경 안 쓰거든 :) 내가 이런 남과 다른 핸디캡이 있는 만큼 너보다 더 열심히 잘 살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18. 미친. 진짜 재수 없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19. 맘먹고 너 내가 죽어라 잘해주고 감동 줘서 나한테 오게 하면 너도 어느새 레즈비언이 돼 있을 걸 여자들도 다 100% 이성애자는 없다하더라.
20. 어떤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는 것 보다 여자건 남자건 사랑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21. 너. 좋아할 일 절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발 남의 일에 신경 끄고 살자.
22. 너나 잘해, 난 내가 동성애자라서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
23. 보통 커밍을 하면 일반인 동성친구들은 자기한테도 혹시나 흑심을 품지 않았나.- 이런 눈으로 슬쩍 보는데 그때 한마디 하죠. " 야, 난 눈 좀 높거든 ?"
24. 너도 이 순간이 되었다면, 나쁘게 생각했을까 사랑이란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이야.
25.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라고 태어났지, 단지 이성만을 사랑해라고 태어난 존재는 아니야.
26. 노력한 적은 없어 누굴 좋아하려고 ...넌 사람 좋아할 때 좋아하도록 노력한적 있어 ? 사람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 만들어 지는 게 아니라. 니 눈엔 내가 여자를 좋아해서,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걸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감정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긴 감정이야. 니가 남자를 좋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말야.
27. 너 나 잘하세요 - 다 같은 삶인데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너 나 잘해.
28. 너만 안 조아하면 됐지 내가 누굴 좋아하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 모라 할 자격은 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29. 그거 알아? 어떤 무언갈 극도로 싫어 한다는 건 자신에게 숨겨진 내면을 감추려는 역반응 이라는 거.. 니가 동성애자를 극도로 혐오한다면 니 안에 잠들어 있는 동성애적 기질을 혐오하는 걸지도 몰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곰곰히 생각해봐 니가 동성애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 못하더라도 그렇게 까지 싫어할 건 또 뭐야~ 안 그래?
30. 도대체 남자가 뭐가 좋냐...난 대체 이해가 안 간다.
31. 반사
32. 밥은 먹고 다니냐?
33. 한대 맞아야겠다.
34. 니가 평소에 제일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친구가 너의 평생 반려자가 될 수도 있단다.
35. 됐거든~~?
36. 날 전부 이해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강요는 하지 말아줘.

37. 넌 무지개색이 좋으니? 난 회색이 좋은데...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
38. 아직도 남잘 좋아하냐? ㅋㅋㅋ 썸 긍정적인 사고방식 좀 가져봐라
39.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있어... 그대상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40. (혹여나 자기 좋아할까봐 별별 떠는 일반에게) 나도 눈이 있거든?
41. 남이 뭐하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여자 하나뿐이다.
42. 그럼 니가 여자 사겨봐.
43. 사람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 넌 안 온 거고, 난 온 거야.
44. 나중에 니 자식이 동성애자가 될지. 니 부모님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을 할지. 니 남편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을 할지. 모르는 거야.
45. 난 사람을 사랑할 뿐이야
46. 그냥 좋은걸 어찌겠니 . 너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 그냥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47. 니가 하는 사랑처럼.. 내 사랑도 사랑이야...웃고 내뽐는 말투로 내 사랑 욕 하지 마. 니 사랑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내 사랑도 그래. 니랑 나랑 똑같은 인간인 것처럼.
48. 너는 너를 여성으로써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냐? 나는 여자들의 아름다움이 좋아서 사랑한다. 남자를 좋아한다면 남

성성을 사랑해서겠지만 나는 여성성이 더 좋을 뿐..--a 어느 쪽을 좋아하는 건 내 취향일 뿐이다.

49. 넌 왜 남자랑 사귀냐? 징그러워
50. 내가 추접고 더럽다고? 나는 추접고 더럽지 않거든, 추접고 더러운 건 당신들이란 거 명심해둬
51. 너 밥이 좋아 반찬이 좋아?? 밥을 먹으려면 반찬이 있어야 되고 반찬이 있어야 밥을 먹는 거야. 그 사람 내겐 그런 존재다. 없으면 안 되는... 너 그런 사랑 해봤니?? 인생 다 그런 거야~
52. 이해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해해달라고 구걸하지도 않겠다. 다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쳐다보면 누군가가. 또 그런 시선으로 널 보게 될 꺼야. 기억해.
53. 니가 하는 불륜은 애절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미친 것이냐...?
54.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사랑했다.
55. 이 세상엔 완전한 이성애자도 또 완전한 동성애자도 존재하지 않아.
56. 내 인생 내가 살지 니가 왜 그래? 신경 끄고 살지 귀찮거든??
57. 제발... 상관마...
58. 배고프면 밥 먹는 거랑 똑같은 이치다~!
59. 난 너희가 소중한 너희가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래. 그리고 너희도 날 그렇게 생각 했으면 좋겠어. 인정하는 건 소중한

에 대한 예의야... 난 있는 그대로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이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소중한 사람이 아니면 내 취향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예;)

60. 당신들만큼 더럽진 않아
61. 너희 같은 인간들이 사귀자고 빌고 빌어도 안 사겨준다
62. 당신들이 나를 내 감정을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나도 당신들의 감정이 이해가 되질 않아.
63. 그러는 넌 남자가 왜 좋냐?? 하고 물어보면 주구장창 대답하겠죠? 그럼 또 “나도 그래서 여자가 좋아.”
64. 마음이 시키는 거니까.
65. 너를 좋아한다고 제발 착각 좀 하지 마. 공주병들...
66. 어쨌든 니가 너무 너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중에도 있는걸 뭐ㅋㅋㅋ성별을 떠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67. 아줌마 여기 개념 하나 추가요 ㅋㅋㅋㅋㅋ
68. 내 취향이야 취향일 뿐이라구!
69. 누가 이해해 달래? 언제부터 관심 있었다고, -- 꺼져버려, 쌍쌍바야
70. 다른 눈으로 보지 마...
71. 사람 좋아하는 감정은 다 동등하다 임마!
72. 당신은 지금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73. 다 이해할 순 없는 세상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세상입니다.

74. 너도 그렇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겠니?
75. 니가 우리를 알아?
76. 너네랑 약간의 차이뿐 모든 건 다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 사생활엔 신경 꺼줘
77.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이해 해 난.
78.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상처주지 마
79. 내가 싫으시면 니가 꺼지세요. 언제부터 내 인생에 신경 썼
다 그러세요. 너나 잘하세요.
80. 신경 쓰지 마
81. 우리가 그거라 니네한테 피해준거 있냐?!! 너희나 잘해!!-
82. 내 인생은 니가 살아 주냐? 내 인생은 내가 산다!
83. 너나, 나나 다~똑같다.
84. 레즈비언이라고 니네들 가슴만 쳐다보며 다니지 않는다.
85. 그래서 뭐? (네가 이반 싫어해서 뭐?)(정말 관심 없음 그런
사람들 뭐라 생각하든)
86. 당신들 삶과 연관된 거 없으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 신경
쓸 시간에, 본인 앞가림이나 더 하세요.
87. 넌 니 식으로 살아. 난 내식으로 살 테니.
88. 우린 단지 사랑을 하는 것뿐이야. 너도 아니라 부정하지만
언젠가는 너와 같은 성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야.
89. 사람일이란 늘 모르는 것이지 ...
90. 하나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그게 우리들 모두의 꿈
일 거야

91.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자니? 변태가 봐...
92. 너는 한 때의 참견과 그 오지랖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
양인데, 어차피 네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
넌 그냥 거부감에 한마디 던진 말이고, 한 시간 뒤면 오늘
먹은 아침 메뉴만큼도 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겠지만, 너
에겐 처음인 그 말이 나에겐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말이
야.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생각도 없으면서 어쭙잖
은 도덕관 끌어와서 상관하지 마.
93. 상관할거면 니가 방향을 바꿔.
94. 너네들 심장만 심장이냐, 우리들 심장도 심장이야.

■ 호모포비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 정리

사춘기, 호기심, 아담과 이브, 지옥, 남성의 부재, 남자 같은 여자, 자연
의 섭리, 성폭행, 경제력 없음, 못생긴 여자, 여중 여고, 짧은 머리, 안
좋은 가정환경, 바지, 윤리,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한때의 착각
(철들면 괜찮아진다), 네 번째 손가락 (손가락 길이), 정신질환, 역겹다,
칼머리, 전기쇼크, 치료가능, 보수 기독교, 유전자 이상, 남자냐 여자냐,
화장을 안 한다, 비정상, 페미년, 권위적 아버지, 좌파 (급진적이다, 진
정한 진보세력), 징그럽다, 신의 실수, 천륜 거스름 (자연에 역행하는
사람들), 남자 못 만난 여자들, 소돔과 고모라, 호모, 변태, 더럽다, 순
결한, 불쌍하다, 에이즈의 주요원인 (주범자), 음침하다, 레즈비언은 모

두 페미니스트, 문란하다, 연애중심, 모든 동성에게 짹짹 걸 것이다, 타고난 성정체성, 성적 취향일 뿐, 결국은 결혼해야 한다, 딜도 애널 섹스, 동성연애자, 특별한 사람들, 이성애에 대한 혐오, 너발달 미숙, 바이는 없다, 병원, 역삼각형, 호르몬 이상, faggot, 정신병자, 레즈, 왕따, 전기치료, gay bathing, 에이즈, 남자형제가 많아서, 쿼어, 다이크, 페어리, 히틀러, 가정통신문, 팬픽 (야오이), 홍석천, 차이, 소년은 울지 않는다, 정확, 조지 오웰, 관련범죄, 억압, 손톱, 무지, 차별, 레즈비언 문화제, 힙합바지, 여고괴담2, 재수없다, 송지나의 취재과일, 시선 (이상한 눈빛), 동성섹스 포비아, 짧은 머리, 남자역할/여자역할, 못생겼다, 가족, 검은색, 섹스, 취향, 바이섹슈얼, 우정과 착각, 혐오범죄, 너 남자 친구 있니, 잘사는 게이/못난 레즈, 사회적 의무도 안하면서, 여러번의 커밍아웃, 우리가족은 안돼, 미친년/미친놈, 비웃음, 커밍아웃할 때 반응, 수근수근(뒷담화), 공포, 핏병, 나는 언제?, 폭력, 교제 어려움, 암, 호주의학계, 놀람, 자긍심 방해, 제도 결혼, 금품갈취, 거짓말, 부처들의 직장생활, 나랑 한번 할래?, 헉!, 우정 아냐?, 혹시 나에게 흑심을 품었나, 스킨십 매니아, 여자 둘은 너무 예로틱해, 못 들은 척, 기도하자, 토할 것 같아, 난 양성애자 같아, 섹스가 가능해?, 여렸을 때 뭐 일 당했니?, 응~(그럴 줄 알았어), 커밍아웃 이후 연락 두절, 예쁜데 어쩌다 레즈비언이 됐을까, 온갖 성병, 진짜 "관계" 아니다, 애인과 걸을 때 남의 시선, 축복받지 못 할 관계

더 가까운 이야기 - 경험

이 호모포비아 어록을 읽어야 할 친구에게 아자

순진무구한 10대를 보낸 건지, 맹하게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살았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끝내야 할 숙제를 해야 하듯 급하게 내안의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었고 마침 그 때는 인터넷이 활성화 되던 때가 아니던가. 그렇다, 나는 레즈비언 커뮤니티들이 붓물 터지던 그 때 관련 정보의 수해를 톡톡히 받았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오면서 꽤 많은 이들에게 커밍아웃을 했고 호모포비아를 겪은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흥분하 다가도 금새 잊어버리고는 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한 친구로부터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기분 불쾌한 말을 들었다. 대학 동기라 오랜 친구이고, 또 만나자마자 쉽게 커밍아웃을 했던 더구나 여성 문제나 동성애 문제 등

관심이 많아서 말도 통하고 주말마다 종로에서 촛불 집회도 가는 소위 깨어있는 친구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친구라 설명할 수 있다. 이 친구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다. 결혼하기로 약조된 소식을 말하면서 마구 설레어 했다. 나야 친구와 친구 피양세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던 터라 “그래 잘 됐다. 축하해-” 라고 인사도 건네고 친절 엄마라도 되듯 왠지 감회도 새롭고 흐뭇하기도 한 터에 마음 한 켠으로 참 부럽다는 마음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뒤이어 “그런데 참 부럽구나, 정말 나도 결혼 하고 싶은데-” 친구는 바로 대답했다.

“왜? 너도 하면 되잖아, 외국에서-”

맙소사, 차라리 대답을 말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구태여 설명을 했다. “외국에서 단 둘이 하는 결혼이랑 한국에서 온 가족 친구들 초대해서 하는 결혼이랑 다르잖아” 친구는 별로 아랑곳없이 자신의 결혼에만 흥분해 있어서 1절만 하고 말았다.

또 하나, 이 친구 대단한 독서량을 자랑하며 인식 있는 소위 식자로서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권하는 친구이다. 위의 결혼 사건 얼마 전쯤에는 심심했는지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혹시, 혹시 말야. 너 나 좋아한 적 있어?”

제발— 당시에는 기가 막혀서 말까지 더듬으며 “뭐? 연애 상대로? 그럴리가, 넌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너를 왜 좋아하느냐고!” 아놔, 나도 눈이 있고 그 친구는 처음부터 확실히 친구였다. 이 친구, 왜 이렇게 감이 떨어져 가는 걸까? 어디 친구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해주는 데 있으면 신고라도 하고 싶다.

아! 내가 모르고 있었던가,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해서 아무 말이나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용기가 가당한 것인지. 내가 너무 쉬운 친구로 여겨졌던 것일까. 상담소 활동가들과 뒷담화를 나누며 속을 달래야 할 뿐;

레즈비언의 결혼과 이성애자의 결혼은 한국의 상황에서 다르다.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레즈비언으로서 박탈감이라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런 말들 하지 말라규! 그리고 레즈비언들 ‘여자’라면 다 좋아하는 것 아니다. 이건 무슨 캠페인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커밍아웃을 하면 많이들 물어온다, “그럼 나 좋아해?”

한 번만 더 들으면 바로 연 끊고 싶은 것 같다. (제발들 위워) 레즈비언, 아무나 마구 좋아하지 않는다. 부디 레즈비언의 우정을 퇴색시키지 않길 바라며—

신의 이름을 빌린 ‘차별’

데조로

나는 잘못 태어난 아이였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아버린 그 순간부터 나는 끊임없이 신에게 분노하며 애원했다.
나는 대대로 내려오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잘못 태어난 저주
받을 동성애자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던 사람
이었다. 너무 소중해서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
이었다. 힘겹게만 느껴졌던 나의 과거들을 고해성사를 하는 기
분으로 더듬더듬 토해놓으며, 나는 그녀 안에서 죄책감이 들 정
도로 행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부모님에겐 그저
더러운 죄일 뿐이었다.

2003년 봄. 나의 어머니가 모는 차를 타고 그녀와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서러움을 꼭 누르며 차마 서로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
한 채 죄인처럼 끌려갔다.

“너는 왜 우리 딸을 만나는 거니?”

“.....”

“너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 거냐?”

“...네.”

“차라리 다리 밑으로 떨어져 한강에 빠져 셋이 같이 죽자,
응?! 죽어버려!”

“아줌마, 언니가 절 사랑하는 건 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
줌마가 낳으신 딸이라구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언니를 몰아가는 건 아줌마라구요.”

이미 이성을 잃은 어머니는 그녀에게 어디서 그 따위 말을 하나
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말자. 엄마, 나 엄마 많이 사랑해. 내 동생
도, 아빠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제발 이러지 마요,
네?”

“엄마도 너 사랑하니까 이 꼴 못 보는 거야. 너도 차라리 고아
를 사랑하지 그러냐. 이게 얼마나 부모 맘을 무너지게 하는데...
무슨 어디서 남자랑 자고 애를 배서 오는 게 차라리 덜 놀라겠
다. 재네 부모님에게도 못할 짓이다, 못할 짓이지... 정말로 사
랑한다면 재 놔줘라. 헤어지라구!”

이렇게 시퍼렇게 그녀와 날 찍어 내리던 어머니는 내 여동생까
지도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듣곤 실신하
셨다. 온 몸으로 울부짖으시던 나의 어머니의 절규를 나는 잊을
수 없다.

“나중에 그 애가 지 남편한테 ‘니네 언니는 이상하다. 레즈비
언이냐?’ 이딴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텐데 넌 죄책감도 없
니? 응? 부끄럽지도 않니? 니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 아
이에게... 그 불쌍한 애한테 그런 상처를 주니?”

며칠 뒤 어머니가 불러온 기도원 사람들이 나를 헤집고 멍들게
했다. 그때 쓰러져 있는 나를 붙잡고

“언니 포기하지 마. 언니 그 언니 정말로 사랑해? 그럼 포기하

지 마. 언니 헤어지지 마...”

굳은 채 펴지지도 않는 내 팔을 주무르며 울먹이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내 동생이었다.

집안의 참을 수 없는 수치로 여겨지던 나에게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건 그 해 가을이었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6개월간 선교단체에 다녀오라는 것이었다. 만일 가지 않겠다면 그녀의 부모님에게 그녀와 나와 관계를 알려줬다는 협박과 함께. 그리고 선심을 쓰듯 그 곳에서도 내 '동성애증'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이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떠난 그 곳에서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그 곳은 목사님의 자녀나 선교사를 꿈꾸는 독실한 젊은 기독교인들이 거처가는 일종의 선교 사관학교 같은 곳이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그런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나의 사랑을 축복해달라고 몸부림치겠다는 나름대로의 굳은 다짐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발목뼈를 다쳐 깁스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위염과 식중독, 두드러기, 설사가 끊이지 않고 나를 괴롭혔지만 그 것 모두보다 참기 힘들었던 것은 나를 바라보는 모두의 시선이었다. 강의 중 계속되는 동성애 혐오 발언에 참지 못한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앞에서 울면서 커밍아웃을 했고, 그 후엔 오히려 더 노골적인 억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누군가는 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측은한 눈을 하고 내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남자들은 내 시선을 피했으며, 공연히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 그 학교의 교장에게 교제하던 사람과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는 질문도 들었다. 비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며, 모든 프로그램이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 곳에서 나는 조용한 시선의 폭력에 24시간 노출되어 있었다. 도망갈 곳은 없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그녀와의 사랑을 인정받겠다고 떠난 것이 무색해질 것이었다. 오기로라도 나는 일단 버텨야 했다.

내 등에 ‘악마의 손아귀에 붙잡힌 불쌍한 영혼’, ‘마약보다 끊기 힘든 동성애 중독자’, ‘더러운 죄를 짓는 자’ 따위의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 같았다. 이미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낙초가 된 나는 차라리 나를 괴물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럴 바엔 모든 괴로움을 참아내며 곳곳이 레즈비언 프라이드(pride)를 드러내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눈물이라도 똑똑 흘리면서 나 좀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게 나았다. 나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였던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던 강의 시간. 교단에 선 강사님이 그 날 강의 구절을 불러주셨다.

“로마서 1장 24절.....”

아, 그 뒤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나는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하기 위해 애썼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붙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빌어먹을.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내 등에 다가온 시선이 쏘아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안 한 자매님이 나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주었고, 나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순간 김스를 한 발목이 심하게 찌셔왔다. 통증 때문에 일그러진 얼굴이 더 이상 펴지지 않았다.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차올라왔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흐느낌이 점점 심해졌다. 결국 강의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절뚝이며 모두 앞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앞에서 열강을 토하다 어리둥절해진 강사님도, 앉아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문을 열어주던 조교도 모두 너무나 조용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다.

그렇게 강의실을 박차고 나와 텅 빈 도로를 걸어가며 나는 계속 서럽게 울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미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는 신에게 구역질이 날 정도로 분노가 차올랐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악하게 살았다고, 왜 내가 동성애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나는 내가 동성애자이길 선택한 적이 없다. 나는 동성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것이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를 선택해서 사랑하

는 사람이 있는가? 사랑이 선택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그게 사랑인가? 마음 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던 끓이지 않는 물음들이 머릿속에 터질 것처럼 꼭 차올랐다. 그러다 무언가 땡땡한 실이 끊어지듯 마음속에 긴장이 탁 풀어지면서 ‘그래.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니 피식피식 웃음이 흘러나왔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내 안의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나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차라리 죄인이라고 해도 좋아. 그렇게 해서 그들과 똑같이 지낼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면.’

숙소로 돌아온 나는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안에 악마가 있나 봐요. 제 힘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나의 진심어린 말에, 눈물에, 그 동안 내게 호기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다.

“그래요, 자매님. 우리 같이 기도 해봐요. 내가 말은 안 해도 자매님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내가 속으로 자매님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자매님이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말해주기를 얼마나 바랬는데.”

나를 둘러싸고 통성 기도가 시작되었고, 나는 그들의 원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 기도를 하다가 악마를 내쫓으려는지 내 등을 철썩철썩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찌됐든 난 그런 식으로 다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

었다.

하루에 한 번씩 나를 기다리는 그녀에게 전화를 하고난 뒤에는 항상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울었다. 너무나 미안해서, 서러워서. 그녀에게 편지로도, 전화로도, 나의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없었다. 나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혐오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아예 해외로 나가 그녀와 어떤 소통도 불가능해졌을 때는 그녀의 목소릴 듣지 못한다는 것보다 그런 이중적인 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심이 더 크게 들 정도였다.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잠깐 정신을 잃었구나’, ‘참 힘들었었지.’, ‘징그럽다 진짜.’ 등등. 그리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준 그녀에 대한 고마움. 하지만 ‘그 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미치지 않기 위한 나의 마지막 발악이었으니까.

반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근 1년간 더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곳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완전히 세뇌되어있던 나의 모든 것을 통째로 바꿔야했기 때문이다. 아마 난 지금도 미쳐서 살아갈지 모른다, 날 기다려준 그녀가 없었더라면. 내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기까지 헌신적으로 돌봐준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비록 지금 내 곁에 있지 않지만 그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 스스로를 안아주고 싶다. 빛을 가장한 어둠 속에서 끝까지 이를 악물었다는 것에, 다시 제정신을 차렸다는 것에.

토닥토닥.

이제 괜찮아.

나도.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쓰기 위해 그때 내가 쓴 일기장을 아주 오랜만에 펴보았다. 일부러 책상 제일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일기장을 꺼내는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게감에 휘청했다. 다시 읽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재회하다니.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성애자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들이 믿는 그 분은 동성애자를 죽여도 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책의 제목처럼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이라는 것을.

신의 이름을 빌어 남을 죄인으로 몰고, 그 상승효과로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안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종교는 점점 거대한 괴물이 되어간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전부 악마가 씌웠다고 매도한다. 그 얼마나 편리한 방법인가! 그릇된 믿음을 가진 눈 먼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인권정책팀을 소개합니다

<인권정책팀>은

상담소에 접수된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 현재 레즈비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이익, 차별과 혐오범죄의 유형이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이를 레즈비언 인권 이슈로 발굴해 법 제도적 대안 책을 제시하고 공론화합니다.

인권정책팀은 일간지 및 포털사이트를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즈비언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편견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상황에 문제제기하며 올바른 보도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합니다.

또한 연령별, 지역별 레즈비언들의 삶의 실태와 문화, 그리고 인권현황을 점검하고, 레즈비언 인권정책을 발굴하며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인권정책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레즈비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를 전신으로 합니다. 상담소는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개개인 레즈비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레즈비언을 향한 모든 차별과 억압의 종식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는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업, 레즈비언 대상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사건 지원, 자긍심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 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레즈비언 권리운동, 레즈비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운동,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실천적 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상담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이메일상담, 면접상담, 내방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개개인 레즈비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레즈비언을 향한 모든 차별과 억압의 종식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전화 (02) 703-3542
상담전화 (02) 718-3542
사무메일 lsangdam@lsangdam.org
상담메일 lsangdam@hanmail.net
홈페이지 <http://lsangdam.org>

후원계좌

국민 498101-01-114263 (예금주: 이진화)
우리 1002-329-844347 (예금주: 이진화)
농협 079-12-806362 (예금주: 이진화)
외환 630-004684-742 (예금주: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발행일	2007년 10월 29일
지은이	고리 나루 데조로 로마 아자 원영
편집	고리 나루
디자인	고리
표지	고리 아자
일러스트	텔마 아자 레고
펴낸곳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인권정책팀 http://lsangdam.org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816호
전화	사무 (02) 703-3542 상담 (02)718-3542
팩스	(02) 703-3543